

장성문화예회관 ‘매진’ 행진...문화·예술 중심 자리매김

올해 공연 27편·행사 132회 개최

어린이 전용 공연 직접 기획·운영

나주·함평 인근 지역·수도권 발길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이 ‘전석 매진’ 행진을 이어나가며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가족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공연이 대공연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공연은 군이 기획한 ‘상상터하기’ 시리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된 2023년부터 어린이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자치단체가 직접 어린이 전용 공연을 기획·운영하는 사례는 전남 지역에서도 드문 일이다.

군은 올해 총 8편의 어린이 공연을 기획했다.

지난 3월 가족 뮤지컬 ‘라푼젤’을 시작으로 ‘어른 동생’, ‘두들팝’, ‘우리 가족’ 등 매달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다음 달 13일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가족 뮤지컬 ‘산타와 루돌프’가 무대에 오른다.

대부분의 공연은 예매 시작 하루 만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 군민 편의를 위해 전체 티켓의 20%는 현장 예매분으로 남겨두고 있다.

공연에 찾는 관객 층도 다양하다. 장성군민뿐 아니라 나주·함평·담양 등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는 어린이 공연 외에도 ‘알리X노을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 등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문화예술회관 살피는 김한중 장성군수(왼쪽)와 지난달 18일 예술회관 대공연장 찾은 관객들. <장성군 제공>

실제 장성군에서는 올해에만 27편의 공연이

40회 열렸으며 ‘장성아카데미 30주년 기념 포럼’,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콘서트’ 등 주요 행사도 132회 개최됐다.

그 결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인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공연장을 찾은 한 가족은 “장성처럼 수준 높은 공연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곳은 드물다”며 “광주 시민이지만 장성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뒤에는 시설 관리와 운영을 맡은 문화교육과 직원들의 헌신이 있다. 대공연장 684석, 소공연장 199석 규모에 비해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음향·조명·안전 점검 등 공연 전반을 세심히 관리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개관 14년이 지난 시설이 이처럼 쾌적하게 유지되는 것은 담당자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며 “장성을 넘어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군민 숙원’ 고흥군립하늘공원 내달 준공

총 198억 투입 현대식 장사시설

최대 60년 사용 가능 공설 묘역

고흥군이 군민의 숙원을 담은 품격 있는 추모공간 ‘고흥군립하늘공원’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진>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고흥군립하늘공원 준공식을 열고 내년 1월께 개원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립하늘공원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현대식 장사시설로, 단순한 봉안시설을 넘어 품격 있는 추모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됐으며, 고흥읍 호령리 산 169번지 일원에 봉안당과 자연장지(잔디형), 유택동산,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이번에 완공되는 하늘공원은 밝고 쾌적한 내부 공간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고인의 안식과 유가족의 위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설계됐으며,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체



계가 마련됐다. 봉안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6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료는 관내 기준 100만원(이용료 80만원, 관리비 20만원)으로 인근 지역 공설 추모시설과 비교해 이용료는 비슷하지만 사용기간은 더 길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하늘공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군민의 효(孝) 정신과 품격 있는 추모문화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장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보성서 건강한 삶 해법 전한다

25일 제379회 보성자치포럼 개최

과학 기반 노화관리·건강습관 강연

보성군이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특강을 마련한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별교읍 채동선음악당에서 ‘제379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정희원(사진) 박사가 초청돼 ‘저속노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

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군민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강연에서는 급변하는 시대 속 넘쳐나는 건강 정보 중 올바른 내용을 구분하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습관’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서울대 의학과와 KAIST 이학박사를 취득한 의과학 분



야전문가다.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MBC ‘라디오스타’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를 운영해 과학 기반의 노화 관리법을 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건강총괄관으로도 활동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지역 현실 속에서 군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영 기자

순천시 ‘올랑가 부캐 페스타’로 도심 활력

오는 15일 중앙7길서 올해 첫 개최

코스튬·마켓·굿즈 등 프로그램 다채

순천시가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를 통해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15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7길 일원에서 ‘2025 순천 올랑가 부캐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각자의 ‘부캐릭터(副 character)’로 변신해 원도

심을 누비는 참여형 축제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코스튬과 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며, 인기 코스플레이어 팀이 참여하는 ‘부캐 플레이 & 부캐 런웨이’ 무대가 마련돼 중앙7길이 다채로운 캐릭터로 물들 전망이다.

또한 ‘프린세스·프린스 다이어리’ 체험, 인기 캐릭터 포토존, 노래·댄스·성대모사 등 부캐 경연대회, 경품 추첨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밖에 지역 상인과 연계한 ‘올랑가 부캐마켓’에서는 음식·굿즈·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시는 사전 모집을 통해 시민 평가단과 부캐플레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원도심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캐 페스타는 시민의 개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순천만의 새로운 문화 축제”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원도심 경제를 살리는 대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자

화순군 “공공배달앱 ‘먹깨비’로 할인 받으세요”

3천원 할인쿠폰 월 2회 제공

화순군이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먹깨비’ 연말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에서 1만5천원 이상 주문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할인쿠폰을 월 1인 2회까지 제공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해당 쿠폰은 다른 할인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다음 달까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소상공인들의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짜 배달’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먹깨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건당 1천원씩, 월 최대 100건의 배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희 화순군 지역경제과장은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 지역 상생형 배달앱 ‘먹깨비’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먹깨비’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1.5%)로 운영되며, 별도의 입점비나 광고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화순=이병철 기자

구례군 반달곰씨름단, 전국장사씨름대회 국화급 우승

엄하진 선수 2대0 완승

매화·무궁화급도 상위권

구례군은 12일 “군 소속 반달곰씨름단이 지난 6일부터 이남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22회 확산김성룡장사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국화급 우승, 매화급 준우승, 무궁화급 3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기량을 다시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화급(80kg 이하) 결승전에 오른 엄하진(사진) 선수는 안산시청 김나영 선수를 상대로 첫 판에서 들배지기 기술로 승리한 데 이어, 두 번째 판에서는 밀어치기로 제압하며 2대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엄 선수는 국화급 정상에 올랐다.

엄 선수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남은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화급에서는 선재팀 선수가 준우승을, 무궁화급에서는 이제미 선수가 3위를 기록했다.

김순호 구례 군수는

“군민의 자랑인 반달곰씨름단이 전국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롭다”며 “올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담양군 내년 142억 투입 미급수지역 상수도 확충

2030년까지 보급 93% 달성 목표

담양군이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식수난 해소 위해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한다.

12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8년도 지방상수도 확충 신규사업 3건에 총 14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 대상지는 담양읍 학동리 예술인마을과 창평면 외동·광덕·유곡·장화리, 가사문하면 연천·경상·지곡·봉암·가암·인암·무동리, 대덕면 입석리 등으로, 그동안 상수도 미공급으로 생활 불편이 컸던 지역이다.

현재 담양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88%로, 군은 2030년까지 93% 달성을 목표로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수 고갈과 수질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이 안정적인 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설계를 마친 창평면 유곡리·용수리 일대 상수도 공급공사를 2028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신계정수장 확장 및 고도처리 시설 설치공사’와 주요 식수원인 신계저수지 확충사업도 병행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군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